

예비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장경진** · 성윤기** · 윤수현** · 정혜승** · 김수향** · 양유리*** · 추상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은 약 70년의 오랜 분단 상태에 놓여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간 법적·제도적 이질화 및 경제 격차의 심화 등으로 민족의 동질성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이다. 즉, 남북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생산과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던 남북협력과 상호교류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 및 핵위협으로 중단되어 남북관계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통일은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아 통일 직후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대비한 보건의료분야의 대비가 필요하다(Shin, 2013).

남북한 상이한 의료체계 및 질병양상은 통일 이후 보건의료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의료시스템은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제를 기반으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광범위한 예방의료, 고려의학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공식 교육과정 외에도 통신, 야간, 특설 등의 필요과정을 거치면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Lee, 2016).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동유럽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붕괴로 인한 경제 악화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Hwang, 2010). 보건의료 분야도 보건의료시설의 총체적인 붕괴상태에 직면하면서 전염병의 증가 등 남북 건강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Hwang, 2014). 국가의 보건 수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기대수명은 남한 82.4세, 북한 70.4세로 약 12세의 차이가 존재하며(Central

* 본 연구는 2015년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였음(과제번호:6-2015-0130).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생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연구소,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hchu@yuhs.ac)

• Received: 30 August 2016 • Revised: 13 December 2016 • Accepted: 26 December 201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u, Sang Hui

Kim Mo-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3257 Fax: 82-2-392-5440 E-mail: shchu@yuhs.ac

Intelligence Agency, 2016)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에 비해 약 8.7배, 모성 사망 비는 약 8.8배나 높은 수준이다(Cho, 2016). 이처럼 심각한 남북 건강 격차와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의 운용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 보건의료체계의 통합과 보건의료문제로 초래되는 위기관리를 위한 통일대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Hwang, 2014; Lee et al., 2013).

일반적으로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감정(affect), 인식(cognition), 행태(behavior)를 포괄하여,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문제 등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Park et al., 2009).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은 통일의식 뿐만 아니라 북한 의료환경 및 북한 의료인을 바라보는 시각, 통일을 보건의료영역에서 자기 자신과 연관 짓는 유관성, 통일시대 보건의료 영역에서 자신이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입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eon, 2012).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과의 관계가 역동적이고 불확실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예비의료인이 통일보건의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살펴 본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즉, 예비의료인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통일대비 전략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통일 시대 필요로 하는 통일보건의료 역량을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20대를 이루는 대학생들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선도해야 할 세대이므로, 대학생들이 남북한 관계나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Byeon, 2012).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5)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대의 30.5%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전 연령 군 가운데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며, 통일을 실제로 다가올 근접한 미래로의 인식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일 직후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가 크게 증가하면, 대규모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관리

및 이들로 인한 남한의 질병양상의 변화는 보건의료인이 실무현장에서 당면할 문제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언어적·문화적 이질성 극복, 서로 다른 교육체계 및 면허체계를 통해 양성된 북한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력 등은 낙후된 북한지역의 보건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예비의료인들을 위한 통일보건의료 교육은 매우 미흡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후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통일보건의료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보건의료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Y대학교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예과, 치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이다.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G*Power 3.1.9.2를 활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할 때 표본 수는 472명으로 산정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5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결과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513명이었다.

3. 연구 도구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 도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미 통일관련 인식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을

활용하거나,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설문문을 사용하였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문항은 Park 등 (2014)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실시한 '2014 통일의식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원 저자로부터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았다. 통일보건의료에 관한 인식문항은 태도와 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팀이 자체 개발하였다. 완성된 설문은 Y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일보건의료 전문가 4인(간호학전공교수 1인, 의학전공교수 2인, 치의학전공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한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의 필요성, 통일 시기, 통일 후 기대되는 삶의 변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으로 구성하였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11점 Likert척도(0-10, 전혀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많다)로 측정하여, 0-3점으로 응답한 군을 '낮은 관심도' 군, 4-6점으로 응답한 군을 '중간 관심도', 7-10점으로 응답한 군을 '높은 관심도'로 구분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통일 및 통일 보건의료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은 5점 Likert 척도(1-5, 전혀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하여, 1-2점으로 응답한 그룹을 '필요하지 않음', 3점으로 응답한 그룹을 '보통', 4-5점으로 응답한 그룹을 '필요함'로 범주화하였다. 통일 시기에 대한 질문(5년 이내/10년 이내/20년 이내/30년 이내/30년 이상/불가능하다)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은 각각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게 하였다. 통일 후 기대되는 삶의 변화는 11점 Likert 척도로(0-10, 매우 불행해질 것이다-매우 행복해질 것이다) 측정하였다.

2) 통일보건의료 관련 인식

통일이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북한 의료인에 대한 호감도, 통일보건의료 교육에 관한 의견, 북한에서의 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의지, 북한의 의료인 양성 실태에 관한 인식 정도는 11점 Likert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통일보건의료관련 태도가 긍정적 또는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통일보건의료 관련 강의 수강 의지는 이분형(있다/없다)으로 측정하였다.

통일보건의료 관련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 의료 관련 지식을 북한 의료 실태에 관한 3개 문항과, 북한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에 관한 7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의 정답률과 영역별, 총 10개 문항의 평균을 구하였다. 북한 의료 실태에 관한 문항은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 사망원인 1위 질환, 북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문제로 구성하였다. 질문에 제시된 북한 의학용어는 1996년 대한의사협회에서 편찬한 '남북한 의학용어'에서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하기 어렵고 남한 의학용어와 이질성이 큰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각 문항별 5개 선택지 중 정답이라 생각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Y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5-0027).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팀은 Y대학교의 간호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및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설문지와 서면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서면 동의 후, 익명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완료 즉시 회수하였으며, 모든 참가자에게 답례품(1,5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회수한 설문지와 동의서는 별도의 박스에 밀봉한 후 잠금 장치가 있는 방에 보관하여 수집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총 56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응답이 미비한 54부를 제외한 51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통일보건의료 관련 인식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chi-square 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북한 의료 실태 및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식은 분석 시에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결과 해석을 위한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남북한 통일 관심도 본 연구에 참여한 513명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207명(40.4%), 여성이 306명(59.6%)이었으며, 연령은 17세부터 34세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22.3(±2.44)세였다. 전공별 분포는 간호학 236명(46.0%), 의학 165명(32.2%), 치의학 112명(21.8%)순이었다(Table 1).

남북한 통일 관심도의 평균은 10점 중 5.27(±2.10)점이었으며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낮은 관심도'(N=93), '중간 관심도'(N=269), '높은 관심도'(N=151)와 같이 세 군으로 나누었고, 각 군의 남북한 통일 관심도 평균점수는 1.97(±1.06)점, 5.06(±0.61)점, 7.70(±0.92)점이었다. 성별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의 관계에서는 남학생(55.6%)이 '높은 관심도' 군에 포함되는 비율이 여학생(44.4%)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의 관계에서는 '높은 관심도' 군의 평균연령(22.91±2.84)이 '중간 관심도' 군(21.96±2.2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산가족 또는 새터민 유무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4$),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경험 유무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러나 금강산 방문 경험($p=.510$)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p=.265$), 북한관련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한 경험($p=.153$) 등의 북한관련 경험의

유무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구 대상자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 관심도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총 279명(54.4%)이었으며 이들 중 '낮은 관심도'가 11명(11.9%), '중간 관심도'가 150명(55.8%), '높은 관심도'가 118명(78.2%)으로 남북한 통일 필요성과 관심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2).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물었을 때 '10년 이내'라고 답한 '낮은 관심도' 학생 수는 1명(1.1%)이었다. 이에 반해 '중간 관심도' 군에서는 12명(4.5%), '높은 관심도' 군에서는 23명(15.2%)이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해 남북한 통일 가능시기와 통일 관심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통일 후 기대되는 삶에 대한 전체평균은 4.28(±1.6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남북한 통일 관심도 정도에 따른 각 군의 평균점수는 3.40(±1.71)점, 4.36(±1.41)점, 4.67(±1.86)점으로 남북한 통일 관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scheffe 사후분석 시 '낮은 관심도' 군의 평균이 '중간 관심도'와 '높은 관심도' 군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1$).

또한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답한 학생 수는 162명(31.8%)으로 이중 남북한 관심도에 따른 군에 따른 학생 수와 비율은 각각 '낮은 관심도'가 15명(16.5%), '중간 관심도'가 77명(28.8%), '높은 관심도'가 70명(46.4%)이었으며 탈북자를 친근하게 느끼는 군에 따라 남북한 통일 관심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통일보건의료 관련 인식

1) 연구 대상자의 남북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태도와 통일 관심도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4.28(±2.2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남북한 통일 관심도에 따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N=513)

Categories	M±SD / N (%)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p
		Low ^a (N=93)	Moderate ^b (N=269)	High ^c (N=151)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5.27±2.10	1.97±1.06	5.06±0.61	7.70±0.92	
Sex					<.001
Male	207 (40.4)	31 (33.3)	92 (34.2)	84 (55.6)	
Female	306 (59.6)	62 (66.7)	177 (65.8)	67 (44.4)	
Age (yrs)	22.32±2.44	22.43±2.00	21.96±2.27	22.91±2.84	.001 ^{b,c}
17~34 yrs					
Nursing	236 (46.0)	49 (52.7)	135 (50.2)	52 (34.4)	
Medicine	165 (32.2)	25 (26.9)	75 (27.9)	65 (43.0)	.006
Dentistry	112 (21.8)	19 (20.4)	59 (21.9)	34 (22.5)	
Are there any dispersed family or North Korea defectors around you?*					.014
Yes	24 (4.7)	1 (1.1)	10 (3.7)	13 (8.7)	
No	484 (95.3)	91 (98.9)	257 (96.3)	136 (91.3)	
Have you ever experienced one item below or not?*					
Experience of visiting North Korea such as Mt. Geumgang and Kaesung					.510
Yes	49 (9.6)	8 (8.7)	23 (8.6)	18 (11.9)	
No	462 (90.4)	84 (91.3)	245 (91.4)	133 (88.1)	
Experience of Mee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265
Yes	115 (22.5)	19 (20.7)	55 (20.5)	41 (27.2)	
No	396 (77.5)	73 (79.3)	213 (79.5)	110 (72.8)	
Experience of reading or watching any North Korean broadcastings or media					.153
Yes	165 (32.4)	24 (26.1)	84 (31.5)	57 (37.7)	
No	345 (67.6)	68 (73.9)	183 (68.5)	94 (62.3)	
Experience of joining in the activities related to North Korea					.005
Yes	33 (6.5)	3 (3.3)	12 (4.5)	18 (11.9)	
No	477 (93.5)	89 (96.7)	255 (95.5)	133 (88.1)	

Table 2.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of Study Participants by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N=513)

Question	M±SD / N (%)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p
		Low ^a (N=93)	Moderate ^b (N=269)	High ^c (N=151)	
Do you think Korean unification is necessary or not?	Necessary	279 (54.4)	150 (55.8)	118 (78.2)	<.001
	Moderate	131 (25.5)	78 (29.0)	17 (11.3)	
	Not necessary	103 (20.1)	41 (15.2)	16 (10.6)	
When do you think Korean unification is possible?	≤ 10 yrs	36 (7.0)	12 (4.5)	23 (15.2)	<.001
	10 yrs < , ≤ 30 yrs	265 (51.9)	150 (56.2)	80 (53.0)	
	> 30 yrs / impossible	210 (41.1)	105 (39.3)	48 (31.8)	
If Korean unification happens, how do you think our daily life would change? (0: Extremely unhappy / 10: Extremely happy)		4.28±1.66	4.36±1.41	4.67±1.86	<.001 ^{a,b,c}
Do you feel close to North Korea defectors?	Feel close	162 (31.8)	77 (28.8)	70 (46.4)	<.001
	Do not feel close	347 (68.2)	190 (71.2)	81 (53.7)	

군의 통일보건의료 관심도 평균은 '낮은 관심도'군 2.48(±1.83)점, '중간 관심도'군 4.11(±1.80)점, '높은 관심도'군 5.68(±2.3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즉,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군일수록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Table 3).

또한 남북한 통일이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관심도'군의 평균 4.51(±2.31)점은, '중간 관심도'군의 평균 5.17(±1.88)점, '높은 관심도'군의 평균 5.67(±2.36)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후 북한의 의료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낮은 관심도'군이 '중간 관심도'군 및 '높은 관심도'군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보건의료에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평균 5.59(±2.15)점 이었으며,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룹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통일보건의료 관련 교육 필요성 점수가 높았다($p < .001$).

앞으로 대북의료사업 혹은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활동을 할 의향에 대한 평균 점수는 4.49(±2.51)점 이었으며, '낮은 관심도'군 2.92(±2.17)점, '중간 관심도'군 4.62(±1.81)점, '높은 관심도'군 5.83(±2.51)점 순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군일수록 통일 후 북한에서의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한편, 현재 북한의 의료인 양성실태에 대한 인식 정도의 전체 평균은 1.52(±1.89)점으로 낮았다. 또한, 북한 의료인 양성실태에 대한 인식 정도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순서대로 '낮은 관심도'군 0.89(±1.66)점, '중간 관심도'군 1.32(±1.63)점, '높은 관심도'군 2.27(±2.22)점으로 '높은 관심도'군의 인식정도가 '낮은 관심도'군 및 '중간 관심도'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보건의료 관련 선택 강의가 열릴 경우, 이를 수강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상자의 46.4%(237명)가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높은 관심도'군의 경우, 68.2%가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2) 연구 대상자의 통일보건의료 관련 지식: 북한 의료 실태 및 북한 의료용어

북한 의료에 대한 지식 설문결과 전체 지식 점수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 2.35(±1.17)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항목별로는 북한 의료실태에 대한 점수는 총 3점 만점에 평균이 0.42(±.60)점이었으며, 북한 의료용어에 대한 점수는 총 7점 만점에 평균 1.94(±1.0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단 3.1%(16명)만이 정답을 맞춰 정답률이 가장 낮았으며, 북한 의료용어에 관한 정답률은 3.7%에서 68.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눈이 피진다', '나뉘심기' 등 유추하기 쉽거나 남한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항목의 경우 각각 68%, 50.9%로 정답률이 높았던 반면, 나머지 항목은 정답률이 50% 미만으로 낮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 의대, 치대 학생을 포함하는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 및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최초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비의료인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성별, 연령, 전공 및 주변에 이산가족 및 새터민의 존재, 북한 관련 활동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는 군복무로 인해 북한 관련 정보 및 대북 방어 훈련 등에 노출된 경험이 여성에 비해 많아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예비의료인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의지 또한 높게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의료인 중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군의 경우, 7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관심의 정도가 태도와 활동 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나 관심도와 활동 의향 정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Jun, Ko, & Hyun, 2015).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예비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긍정

Table 3. Awareness of Healthcare for Korean Unification of Study Participants by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N=513)

Question	M±SD / N (%)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P
		Low ^a (N=93)	Moderate ^b (N=269)	High ^c (N=151)	
How much are you interested in the healthcare for unification? (0: Not interested at all / 10: Extremely interested)	4.28±2.26	2.48±1.83	4.11±1.80	5.68±2.37	<.001 ^{a,b,c}
How do you think about the effect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healthcare system? (0: Extremely negative / 10: Extremely positive)	5.20±2.14	4.51±2.31	5.17±1.88	5.67±2.36	<.001 ^{a,b,c}
How do you think about working with healthcare workers from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0: Extremely negative / 10: Extremely positive)	5.32±1.92	4.24±2.11	5.41±1.61	5.83±2.04	<.001 ^{a,b,c}
Do you think that students of nursing, medical and dental college need to study healthcare for unification? (0: Not needed at all / 10: Extremely needed)	5.59±2.15	4.12±2.16	5.54±1.76	6.60±2.26	<.001 ^{a,b,c}
How much are you interested in seminar (colloquium, lecture and others) related to healthcare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healthcare for Korean unification? (0: Not interested at all / 10: Extremely interested)	4.67±2.31	2.92±2.17	4.62±1.81	5.83±2.51	<.001 ^{a,b,c}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healthcare in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0: Not interested at all / 10: Extremely interested)	4.49±2.51	2.89±2.55	4.54±2.23	5.40±2.48	<.001 ^{a,b,c}
How much do you know about status of training healthcare workforce in North Korea? (0: Not at all / 10: Extremely well)	1.52±1.89	0.89±1.66	1.32±1.63	2.27±2.22	<.001 ^{a,b,c}
Will you take the lecture on healthcare for unification if it is opened?		Yes 16 (17.4)	118 (44.0)	103 (68.2)	<.001
		No 274 (53.6)	150 (56.0)	48 (31.8)	

Table 4. Knowledge of Study Participants about Healthcare of North Korea (N=513)

Question	Answer	Percent of correct response N (%)
What is life expectancy in North Korea?	70 years	80 (15.6)
What is the most urgent problem of healthcare in North Korea that we need to resolve among the problems that WHO specified (2009-2013)?	Improvement of providing service, developing competence of policies and planning, reinforcing healthcare system for development (medicine, vaccine, local production of medical supplies)	119 (23.2)
What is the number-one cause of death in North Korea?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16 (3.1)
Medical term in North Korea	'눈이 피진다.' Have bloodshot	327 (68.0)
	'알몸 중독' Drug addiction	19 (3.7)
	'나뉘심기' Organ transport	261 (50.9)
	'쪽골' migraine	222 (43.3)
	'몸풀이' Giving birth	81 (15.8)
	'열물주머니' Gall bladder	29 (5.7)
	'매없이' Paralysis	32 (6.2)
	'Medical state of North Korea' score average	0.42±.60
	'Medical term in North Korea' score average	1.94±1.02
	Knowledge total score average	2.35±1.17

적인 태도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주변에 이산가족이나 새터민의 유무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새터민과의 접촉이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관념 등을 감소시키며(Kim, 2004), 외국인 친구가 많을수록 새터민을 포함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Kang & Han,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변에 이산가족 또는 새터민이 있는 예비의료인의 수는 총 연구 대상자 513명 중 24명이었다.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총 129,698명이었으나, 이 중 63,406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생존 이산가족 중 절반 이상인 54.3%가 초고령자임을 감안하면(Lee, 2015), 가족 또는 새터민과의 접촉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참여자인 예비 의료인들의 약 54%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19~2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43.1%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Park et al., 2014). 하지만 통일의식 조사에서 40대 56.5%,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67.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하면, 기성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국민들에 비해 예비 의료인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일개 대학교의 '남북한 정치 쟁점'이라는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hung (2013)의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강좌를 수강한 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어, 예비의료인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예비의료인의 북한 의료와 관련한 지식 정도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과는 관련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북한 의료인 양성실태에 대한 인식 정도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관계 없이 모든 그룹의 점수가 낮아, 연구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의료인 양성실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의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북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역사회 일차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한 분야별 보건의료 인력 상호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Hwang, 2014).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훈련 받은 북한 보건의료인을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영양 및 위생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13년 기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854달러로 남한의 2만 3,838달러에 비해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Kim, 2014). 북한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2005년 북한 성인 1일 에너지섭취량은 2,146kcal, 단백질 섭취량은 59g으로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최소 에너지섭취권장량인 2,450kcal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15~49세 북한 여성의 1/4이 상위위 둘레로 평가한 영양상태 평가에서 영양결핍상태로 평가되었으며,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국내 입국한 탈북 청소년의 평균 신장은 남한 청소년의 평균 신장보다 10cm이상 작았다(Lee, Park, Kim, & Park, 2011). 이처럼 남한에 비해 낮은 북한의 경제 상태와 영양상태의 격차는 통일 후 보건복지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남한이 부담해야 할 전반적인 통일 비용 및 국민통합을 위한 비용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Hwang, 2012).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 이후 3년 동안 보건의료 통합 및 정비를 위해 투자된 총액은 연간 500억 DM (Deutsche Mark)수준이며, 이는 구 동독지역 주민 1인당 30,00 DM(한화 1,800만원)에 해당한다(Sohn, Lee, & Park, 1999). 이와 같은 통일 후 보건의료 분야 격차 해소를 위한 막대한 비용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서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많은 예비의료인들이 북한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북한 기대 수명을 실제 기대수명인 70세보다 낮을 것이라 답하였다. 남한은

1970년대에 기대수명이 58.8세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선 후 70.4세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80세에 이르렀다. 즉, 예비의료인들은 현재 북한의 기대수명이 남한의 70년대 또는 80년대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북한 주민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부분이 감염, 영양 및 모자 보건 관련 질환을 선택하였지만 실제 북한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심혈관 질환이다(Hwang, 2014).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양한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통일보건의료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환경, 또는 이념적 갈등에 초점을 둔 TV, 언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북한 관련 정보는 통일보건의료에 관한 균형적 시각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심화되어, 북한의 의학용어 및 간호학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보건의료 및 간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통일 후 환자와 의료인 간의 또는 남북한 의료인 간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Kim, Lee, Ko, Kang, & Jang, 2015).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낮은 북한 의학용어에 대한 이해는 향후 남북한 통일된 용어 확립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이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도 및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편,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은 의료계 간의 다 학제적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의학, 치의학, 간호학 연합 활동 지원과 연계 교과목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과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예비의료인의 자율적 관심을 제고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장 탐방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 및 실습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의 간호교육에 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Yi (2001)는 연구에서 우선 북한 간호교육에 관한 자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국가적 상황에 맞게 변해온 북한의 간호교육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1947년부터 무상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했다. 간호교육의 경우도, 단기간에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에 적합한 품성 함양 및 실무 기술 습득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초부터 간호교육이 3년제로 전환되었으나 각 병원에서 6개월 단기교육을 통하여 자체 간호 인력을 충당하고 있어, 간호교육 연한이 4년으로 일원화된 남한의 간호사 양성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남한과 다른 의료인 양성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차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보건의료 교육의 필요성, 북한의 의료인과 함께 일할 의향, 통일 이후 북한에서 활동할 의향 등을 포함하는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정도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 및 향후 통일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현재 예비의료인의 북한 보건의료현황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 통일한국 보건의료의 주역인 예비의료인의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통일에 대비하여 전문직간 협력적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패러다임 구성과 북한학, 통일학, 간호학, 의학 등의 다학제적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아카데미즘을 간호학계에서 선두적으로 구성하여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계를 위한 성공적 토양을 다져나갈 학문적 체계의 마련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북한의 보건의료관련 문헌이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에 있다. 또한, 현재 연

구된 대부분의 북한의 보건의료관련 자료는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환경으로 인해 그 신빙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대부분의 자료가 의학과 일부 치의학에 한정되고, 간호학과 관련된 자료는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커다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적 이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북한 및 북한보건의료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yeon, J. (2012). The task of unification education at colleges. *Unification Policy Studies*, 21(1), 157-186.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6, November). *The world factbook (East & Southeast Asia: Korea, North)*. Retrieved November 10, 2016, fro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kn.html>.
- Cho, K. S. (2016). Major health indicators in south and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west and east German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2), 33-56.
- Chung, Y. H. (2013). The influence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change of unification and peace awarenes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education and extern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ology*, 49, 407-442. <http://dx.doi.org/10.15299/jk.2013.11.49.407>.
- Hwang, N. M. (2010). Identification of health indicators based on the 2008 Census of population in DPR Korea. *Health Welfare Policyforum*, 11, 76-88.
- Hwang, N. M. (2012). Health inequali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ealth and Welfare Issue and Focus*, 131, 1-8.
- Hwang, N. M. (2014). Strategies and challenges of preparation for healthcare for unification. *Health and Welfare Issue and Focus*, 240, 1-8.
-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5). *Understanding of Korea unification 2016*. Seou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Jun, S. Y., Ko, I. S., & Hyun, L. J. (2015). Influencing factors of SNS usag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cience*, 38, 69-93.
- Kang, H. Y. & Han, S. Y. (2013). A study on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minority groups in a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7(1), 166-178.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1.166>.
- Kim, C. G. (2014). Weekly economic review - estimating North Korea's GDP and comparing economy and social aspec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2013. *Korea Weekly Economic Review*, 582, 1-21.
- Kim, I. S., Lee, H. J., Ko, I. S., Kang, G. H., & Jang, Y. K. (2015). Comparison of nursing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8, 93-110.
- Kim, S. H. (2004).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towards the minority group in the Korean society. *Social Research*, 7, 169-206.
- Lee, H. (2016). Plans for integrating health care personnel between the tow Korea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8(1), 1-15.
- Lee, I. S., Park, H. R., Kim, Y. S., & Park, H. J. (2011).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7(4), 256-263. <https://dx.doi.org/10.4094/jkachn.2011.17.4.256>.

- Lee, S. H. (2015). *Issues based on indicators*.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Lee, Y. H., Yoon, S. J., Kim, S. H., Shin, H. W., Lee, J. Y., Kim, B., Kim, Y. A., Yoon, J., & Shin, Y. S. (2013). A strategy toward reconstructing the healthcare system of a unified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46(3), 134-138.
- Park, M. K., Kim, P., Kim, B. J., Park, J. R., Chung, E. M., & Lee, S. S. (2009). *An attitude survey of Korean unification*. Seou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M. K., Kang, W. T., Kim, P., Kim, B. J., Song, Y. H., Chang, Y. S., & Chung, E. M. (2014). *An attitude survey of Korean unification*. Seou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hin, Y. (2013). Plan on establishment of post-unification North Korean medical safety.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s*, 56(5), 394-401.
- Sohn, M. S., Lee, Y. G., & Park, J. Y. (1999). *Change of united Germany's health care system*. Seoul: Ajou South and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Research Institute.
- Yi, G. M. (2001). Nursing education in North Korea: Past 50 years and future.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2), 437-449.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Health Care in Healthcare Professional Students*

Jang, Kyung Jin (Under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ng, Yoon Ki (Under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Yoon, Su Hyun (Under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Chung, Hye Seung (Under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im, Soo Hyang (Under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Yang, You Lee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Chu, Sang Hui (Associate Professor, Kim Mo-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health care in healthcare professional students. **Methods:**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and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567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OVA, and scheffe test. **Results:** A total of 279(54.4%) students answered that Korean unification is needed. The mean score of attentiveness to Korean unification was 5.27(\pm 2.10) out of 10, and the mean score of interest on health care for unification was 4.28(\pm 2.26). The degree of interest in Korean unific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health care for unification(p <.001). The mean score of necessity regarding health care education for unification was 5.59(\pm 2.15) out of 10, which wa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Korean unification(p <.001). The mean score of knowledge regarding North Korea's medical status was 2.35(\pm 1.17) out of 10.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continuous education about unification as well as health care for unific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healthcare in students. Furthermore, additional studies to better understand nursing care systems of North Korea and to identify the roles of nurs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public healthcare of unified Korea are needed.

Key words : Healthcare professional students, Unification, Health care, Awarenes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6-2015-0130).